

엄힘과 맞닿음 - 실험형이상학과 물질윤리학

최종덕 (독립학자, philonatu.com)

1. 유물론에서 신유물론까지

물질주의 혹은 유물론 스펙트럼	욕망의 물질	통속 유물론		• 소비사회의 물신주의를 일컫는 메타포로서 유물론
	토대의 물질	존재론적 유물론	데모크리토스 유물론	• 신화적 세계해석에서 벗어난 자연주의 세계관
			형이상학적 유물론	• 유심론과 대비되는 존재론의 태도
		과학주의 유물론	기계론적 유물론	• 근대적 의미의 기계론적 유물론
	토대/관계 의 물질	동력학 유물론	환원주의 유물론	• 과학방법론에서 환원주의의 기초
관계의 물질	변증법적 유물론		• 물질 변화의 토대 위에 관계적 역사변동	
	에피쿠로스 유물론		• 팍차이여 다루기 벅찬 자유의 필드	
관계의 물질	신유물론	실존주의 유물론	• 물질과 삶의 일탈declination	
		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이론	• 생명의 우연성, 그러나 무작위가 아닌 숨겨진 인과로서 복잡계	
		구성주의/탈자연화(반자연주의)	© philonatu.com	
		자연주의 경향 (de Waal, 해러웨이)	• 로고스, 초월성, 인간중심주의 탈피	
		행위실재론	• 부엽토로서 인간/비인간 공생의 하이브리드	
		네일 ^{T. Nail} 의 능동적 신유물론	• 물질/의식, 자연/문화, 객체/주체의 이분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거나 원래 그 사이의 경계가 없었던 엄힘의 관계	
			• 배제가 아닌 포용inclusion하는 비인간 수행성 혹은 ANT	
			• 물질의 능동성(그러나 생기론을 경계함)	

* 참조 - 표 안의 분류와 구별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.

2. 회절 : 해러웨이(1991/1997) 회절방법론을 이어받은 버라드

반영 reflexive methodology	회절 diffractive methodology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현주의(실재를 그대로 기술한다는 뜻)는 knower/known 분리에서 출발한다. • 객관주의, 물질수동성 • 대상 그대로 기술하는 미러링의 관찰방식, 관조하는 태도holding the world at a distance(91) • 원자론과 동일성의 존재론geometries of sameness 반복과 복사 • 인간중심(자아중심/남성중심) • 물질과 의미의 잘못된 이분법의 재현주의를 버라드는 강하게 비판한다.(88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한 참여로서 차이의 패턴을 생성하며, 참여 이전까지 세상은 미확정의 타자이다. 주체/객체 인간/비인간의 분리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회절이다.(91) • 관계 속 사물을 통찰하며 차이를 존중하며 윤리적 참여의 행위가 곧 존재-인식론이다.(2007, 50) • 타자와 자아 사이의 내부작용으로 그 경계가 없다. • 해러웨이의 공동생성 sympoiesis, 물질의 능동성을 성찰하면서 차이 드러내기 • 인간/비인간 모두 자연의 일부로서 엄힘의 존재-인식-윤리적 존재

3. 캐런 버라드, 얽힘과 맞닿음의 양자물리학적 배경

얽힘entanglement

닐스 보어의 양자역학(코펜하겐 해석) 기반

Meeting the Universe Halfway: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, 2007

맞닿음touching

R. 파인만의 양자장론 기반

On Touching: 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. Differences 23(3), 2012

물질과 의미가 내부작용으로 얽혀있다.

- 행위실재론 : 존재의 기본단위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현상phenomena이다. 여기서 현상이란 관계 성격이며, 물질과 의미, 자연과 인간등이 분화되지 않은 현상 안에 얽혀있다. 현상은 내부적으로 연결intract되어 있으며, 우주는 내부작용 intra-action으로 생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.
- 상호작용은 기존 개체들 사이의 고전역학적 상호관계이지만, 내부작용은 관계가 선제하여 그 관계 속에서 개체들이 비로소 드러나는(출현, emerge) 작용을 말한다.(33)
- 하이젠베르크에서 입자 위치와 운동량을 (인식론 측면에서)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며, 닐스 보어에서는 입자 위치와 운동량의 존재론적 결정값을 동시에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.(19)
- 버틀러에서 젠더는 gender가 아니라 gendering이듯이, 버라드에서 물질은 matter가 아니라 mattering이다.(2007, 57)
- being + knowing + doing = 존재론-인식론-윤리학의 얽힘
- 행위doing와 사유thinking의 상보성(21)
- (예) 번개는 신화시대에서 귀어하지만 과학시대에서 땅과 구름이 얽혀 만나는 일상의 현상이다. (Nature's Queer Performative 2012)

무경계와 자기-상관성으로 맞닿아있다.

- 맞닿음은 응답능력respons-ability이다.
- 세계의 모든 것(물질과 의미)은 주어진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수학을 벗어난 탈선을 지향한다. 중심이 없으며 물질은 내부관계된 요소들이다.
- 입자와 진공으로 구축된 데모크리토스 존재론에서 벗어나 입자-진공-장field은 내부작용하는 관계항이다. 즉 물질은 진공으로 다시 진공에서 물질로 변성하며 생성소멸한다. 이는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한다.
- trouble matters(무한, 기이, 돌발성): 자기-상관성으로서 입자와 진공의 비분리성은 자기가 자기 자신과 맞닿아 있을 보여준다. 물질은 접힘 상태이다. 행위에 행위자actant가 선제한다는 기존 존재론에서 탈피한다.
- 응답의 물질화와 윤리 - 우리 각각은 맞닿음을 통해 타자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된다. 윤리성은 모든 존재/비존재를 통합하여 맺어진 이방인에 대한 환대를 포함한다.
- 물질화: 존재론적 비결정성, 라디컬 개방성, 무한 가능성(160)
- 정체성과 국소성, 분열과 고립, 배제 대신에 관계와 얽힘 책임과 포용inclusion

4. 신유물론: 실험형이상학에서 물질윤리학으로

- ① 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실재계real world를 설명하므로 물질형이상학이다. 버라드는 이를 “실험형이상학”으로 표현한다.(2007, 7장) 자연의 인과적 현상도 내부작용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.
- ② 인간/비인간, 물질/의식, 자연/문화, 객체/주체, 자아/타자, 자기1/자기2, 과학/인문학, 존재/가치 이분법을 붕괴한다.
- ③ 로고스, 초월주의,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자연문화론(해러웨이 용어)이다.
- ④ 자연화된 것과 자연적인 것의 차이를 말한 버틀러의 탈자연주의 지향은 여전히 구성주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반면 버라드는 버틀러와 다르게 자연주의와 윤리학을 상관적으로 본다.
- ⑤ 버라드 행위실재론은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물론이지만(41), 물질은 그 실재성이 내부-작용에 있으며 수행/행위와 얽혀있어서 책임과 윤리없는 존재-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.

** 관련 자료는 발제자 홈페이지 philonatu.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.